

사람이 하나님으로 중생하는 과정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원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현재의 나는 마귀 영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기까지는 그냥 시시하게 매를 몇 대 때린다고 해서 마귀가 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에 달할 정도의 그런 역울한 일을 당해야 마귀가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역울한 일 수없이 당해야 마귀가 죽어

이 사람이 연단 받는 동안에 그야말로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역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마귀가 죽어야 이긴자가 되는 거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원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길을 가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역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은 희생적인 성품이면서 마귀의 성품은 이기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노라면 누구한테 지는 생활을 했어요. 이기는 생활을 했어요? 이기는 생활을 했죠? 그런데 승리제단 와서는 저절로 누구한테든지 지는 역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승리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이기려면 피를 토하고 고구라질 정도로 역울한 일을 당해야 마귀가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 역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가 희생적인 영인고로 참고 견뎌으로써 하나님의 나가 현재의 나를 이기게 되니까 나라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한두 번에 되지 않고 수 차례 걸쳐 역울한 일을 당해야 그래야 현재의 나라고 하는 마귀가 죽는 거지 그냥 몇 대 때

를 맞았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육을 몇 번 먹었다고 해서 마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이긴자

그러고요 이 사람이 말씀하기를 누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나를 욕을 하고 몹시 때리는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납득이 안 가죠? 현재의 나라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자존심이 있는 입장에서 들으면 설마 그랬을까? 하는 정도로 이해가 안 가요. 이긴자가 되는 이 길은 나를 완전히 이기고 나를 죽여야만 이긴자가 되는 거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이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요 "주 안에 행복 누림으로 마음속 풍량이 안정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고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 이 찬송처럼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야, 그 사람이 이긴자고 그 사람이 중생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이름과 집을 잊어버리다

그래서 이 사람은 50년 동안 부르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옛 사람이 살아있는데 잊어버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야,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저거 몰았구나." 생각을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요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



구세주 조희성님

았던 것입니다.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밀실 들어갈 때에 입고 들어간 양복 안주머니를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들어간 거예요. 안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손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이름이 그 주민등록증에 쓰여 있는고로 "야, 내 이름이 조희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말이지요? 사실상 이 사람도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3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옛 사람 조희성이라면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살던 집을 내가 모른 거예요. 이름은 알았는데, 그 집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요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보고 물어 물어 찾아갔다면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중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물어 물어서 갔을 때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몰았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C5동 4호실이 어디냐?"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야, 여기 있었어요. 아시면서." 하고 그 조그만 아이가 핀잔을 줘요. 아는 사람인고로 "알면서 괜히 물어보셔?" 그 어린아이들로 부터 핀잔 받은 사실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 거죠?

완전히 옛 사람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 조희성이 조희성의 집을 알 수가 없고 조희성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게 바로 중생 받은 증거야. 아시겠어요?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안 되다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가 없고, 가족을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연단을 밀실 안에서 수년간 받게 되니까 완전히 가족도 잊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가족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의 새 사람인고로 이 사람이 집을 찾아가니까 집에 어머니와 딸이 되는 지숙이만 집에 있는데 이젠 남의 집 찾아온 것 같아요. 어머니같이 생각이 안 돼요. 완전히 옛 사람 조희성이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인고로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서 서먹서먹했던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갔으면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온 자식이나 밥을 해서 먹이고 놀다 가라고 하실텐데 놀다 가라는 말도 안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완전히 다르니까 내 자식처럼 생각이 안 되고, 내 아버지처럼 생각이 안 되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아들이 없었던 고로 내가 그 딸이한테 얘기하기를 "네 오빠가 어디 갔냐? 내가 1주일 뒤에 올 테니까 네 오빠를 오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친아 아버지처럼 느끼면 보고 싶어서 오겠지요? 이 사람이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부대에 다닐 정도로 지극히 사랑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찾는 데도 오지 않는 그런 정도는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은 원수 영인고로 아들이 오지를 않는 것이올시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안 옵니다." 하고 딸아이가 얘기하는고로 이 사람은 그때 섭섭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버지처럼 느껴지면 그게 이긴자야, 죄인이야? 죄인이요? 이 사

람이 일주일 만에 가서 아들도 보지 못하고 되돌아온 다음 그 다음부터 집에 가지 못했어요. 생각이 나지 않는고로 두 번만 딱 가고 안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밀실에서 더 있다가 이 세상에 81년도 8월 18일 날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역사인가, 사람의 역사가 아닌가? 이 사람이 밀실 안에 들어간 달과 날짜가 8월 18일 날 오후 3시 50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하러 나온 날짜가 8월 18일 날 오후 3시 50분이에요. 이거 참 누가 이렇게 맞출래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한국에서 하늘의 역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게 될 때에 바로 미국 가는 비행기가 1986년도 8월 18일 날 오후 이제 3시 20분 비행기인데 연착이 돼 가지고 3시 50분에 출발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것이 하늘의 역사가 분명하죠?

우리 제단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꿈을 꾸고 왔어요. 꿈에 이 사람을 보고 온 사람도 많고, 꿈에 "역곡으로 가라, 역곡으로" 해서 온 사람이 많아요. 초창기에는 누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해 가지고 역곡까지 온 사람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고요 이것이 분명히 하늘의 역사요? 많은 사람이 사랑에서 꿈을 꾸고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분신으로 역사를 해서 이제 동쪽, 서쪽, 남쪽 할 것 없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모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이었답니다.*

1992년 4월 10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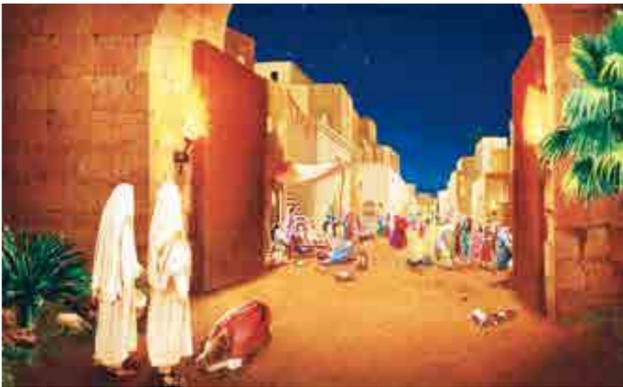
(14) 의인 열 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난호에 이어서)
그가 또다시 여쭙었습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십 명만 되어도 마귀한테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옳은 사람 이십 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쭙었습니다.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 열 명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야 여호와께서 무겁게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 열 명의 의인만이라도 나와 함께하여 마귀와 싸운다면 아마 승산이 있으리라."

사실은 소돔성에 옳은 사람이 열 사람만 살고 있더라도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형식을 빌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던(창18:22) 이곳은 마르레의 천막(헤브론)에서 남동쪽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마사다 부근이었습니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5) 눈을 뜨고도 문을 찾지 못하는 소돔 사람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1)

을 자던 중에 삼손이신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보인 아브라함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 한 분과 함께 했습니다.

롯은 잠에서 곧 깨어났지만, 한밤에 꾸었던 꿈이 꼭 현실에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어나 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성문 앞으로 가는데 때마침 길가의 감람나무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정말로 반가운 손님이오 시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성문에서 멀리 쳐다보며 삼손 아브라함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던 롯은 다리가 저려오는고로 성문 곁에 앉아 해질녘까지

삼손의 방문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날, 날이 어둑어둑해서 소돔성 안으로 두 사람의 길손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열 사람의 착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온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성문을 왕래하는 사람이 끊겼는데 저 멀리서 길손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롯은 보게 된 것입니다. 롯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까이 다가온 길손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어느 쪽도 삼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길손 두 사람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꿈에서 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롯은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롯은 두 길손을 집으로 맞아들이려 했는데, 두 길손은 사양하면서 어젯밤에 노숙을 했는데 오늘도 거리에 묵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제야 롯의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돔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염탐꾼을 롯이 집에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롯아! 롯아! 다른 나라에서 온 염탐꾼을 내놓아라!"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롯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롯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 우리 집에 오신 두 손님만은 해하지 말아 주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딸이 넷 이상이라면 그 딸을 두들겨 채우기 위해서 순순히 물러설 수 있었겠지만, 롯의 이웃인 그들은 롯에게 단지 딸 둘만 있을 뿐이요, 그 두 딸마저 정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모두 소돔 사람이기에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롯의 계획이라는 것을 간파한 소돔 사람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밖에서 버티고 있는 롯에게 "비켜서라,

네 놈도 우리 성에 떠돌이로 와서 사는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느냐. 어디 그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주어야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동족인 롯의 사위를 생각하고 롯을 밀치기만 하고 그 문만 깨뜨려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천사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천사가 그의 바른손을 펴서 위로 치켜들고 아래로 허공을 한 번 휘갈겼습니다. 그러자 문밖의 무리들이 눈을 멀거나 혼 상태에서도 문이 보이지 않게 되어 그 문을 찾느라고 허둥대다가 제풀에 지쳐서 흩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기사이적이 오늘날 승리제단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처에 습격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울렸다가 내리니 그들이 눈을 뜨고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시던 주님께서 단상에서 내려와 목이 곧고 완악한 그들 무리들 사이로 지나가는 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악인의 무리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0-11절
그 사람(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밖의 무리로 무너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안젤라